

조선후기 동아시아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 강증산(姜甌山) 사상을 중심으로 -

고 남 식**

<목 차>

1. 서언
2. 강증산의 동아시아 문제해결 원리
3. 일본과 조선에 대한 증산의 문제해결 원리
4. 중국에 대한 증산의 문제해결 원리
5. 결어

1. 서언

강증산(姜甌山, 1871-1909)은 구한말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서세동점(西勢東漸) 하의 혼란한 상황 하에서 동양을 지키기 위해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했던 인물이다. 동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19세기 말인 조선 말기에 동아시아는 서양세력의 침략으로 일대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 증산은 조선 말기인 1871년에 탄강하여 시대적 현실을 인식하고 민중구제의 신앙을 전하였다. 증산은 서양을 경계하고 동양을 지키기 위해 동양 수호론(守護論)을 주장하였으며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신 패러다임을 선포하였다.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 본 논문은 2014년 6월 13일 “동아신종교국제연토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부교수

동아시아의 신질서 구축은 과거 역사와 동아시아에 대한 깊은 증산의 성찰에서 유래한다.

증산이 동아시아 삼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식은 먼저 과거 동아시아 삼국에 대한 해원(解冤)과 보은(報恩)의 원리를 전제하고서 출발한다. 아울러 증산은 새로운 사상인 신도(神道) 사상과 풍수지리(風水地理) 사상에 따른 동아시아관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새 질서를 구축하고자하였다.

증산은 중국의 요(堯)임금시대 요와 그의 아들 단주(丹朱) 사이의 원(冤)으로 인해 세상의 문제가 시작됐음을 밝히고 과거 功을 세운 중국의 강신농과 강태공 등의 인물들에 대한 보은을 해주어야 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증산은 기존 유불선(儒佛仙) 사상의 한계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인식하고 이들 사상의 장점을 뽑아 쓰는 위에 자신의 9년간의 종교적 행적인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를 통한 이상세계의 건설을 언급하였는데 그 사상은 신도(神道)사상으로 명명된다. 또한 증산은 풍수지리(風水地理)에 입각하여 한중일(韓中日) 삼국을 인식하여 새로운 질서가 구축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해원, 신도, 풍수지리 등과 때론 보은(報恩)의 논리에 의해서 증산은 한중일 삼국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에 자신의 천지공사에 의한 신질서의 이상세계를 형성시켜 나가고자하였다.

이 글은 증산이 한 중 일 삼국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한 삼국간의 당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상호간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사상에 기저(基底)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자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2장에서 증산의 동아시아 삼국에 대한 문제해결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일본과 조선에 대한 문제해결을 본 후 4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문제해결 논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 대해 증산이 어떻게 한중일 삼국의 부정적 과거 상황을 전환시켜 동아시아의 미래에 이바지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강증산의 동아시아 문제해결 원리

개화파는 개체, 개화, 공리에 그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면, 위정척사파는 전체, 수구, 의리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며, 두 계열은 이념적 갈등과 역사적 질곡으로 인하여 발전적으로 지양되지 못하였던 것이다.¹⁾ 증산은 서구의 충격이후 이러한 두 사상적 흐름에 대하여 상생적 입장에서 동양을 지키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행적을 구축해 나갔다. 증산의 동아시아 삼국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해원(解冤), 신도(神道), 풍수지리(風水地理)이다. 첫째, 증산은 해원의 원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크게 보아 증산은 조선에 대해서 일본은 해원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해원의 측면도 있으나 보은(報恩)의 원리가 중심이 됨을 밝혔다.

먼저 증산의 동서양관을 대표적으로 보면, 증산은 19세기말 상황과 관련해서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다²⁾ 라고 하여 서양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피력(披瀝)하였다. 이에 증산은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수호하기 위한 천지공사를 행하였다.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리라」깊이 우려하시사 중도들에게 계묘년 여름에 「내가 일로 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이제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사십구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붙여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³⁾

1) 이상익, 『서구의 충격과 근대 한국사상』(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22쪽.

2) <전경>, 공사 2장 4절, 이하 인용은 장과 절만 표시함.

3) 예시 23, 24절.

증산의 동양에 대한 수호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에서 일본을 돕는 것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신이(神異)한 요소를 담고 있는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해서 러시아를 물리치는 것으로 동남풍(東南風)을 일으켜 러일(日露)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증산은 19세기 말에 대한 상황인식과는 다르게 서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이지 않았다. 이는 ‘西有大聖人曰 西學⁴⁾’이라 하고 이마두(利瑪竇, 마테오 리치 1552-1610)에 대해서 이마두가 생시에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이루고자하고 사후에 천상과 지하를 개방한 긍정적 인물로 보았으며 아울러 미래의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을 이마두로 정하였다.

첫째, 증산이 주장한 해원(解冤)사상을 보기로 한다. 증산은 다음과 같이 원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선천(先天)시대의 병폐에 대한 근원적 원인을 진단했다.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⁵⁾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보된 바이니라.⁶⁾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⁷⁾

이상의 내용들은 인류사의 많은 문제가 상극(相克)에 의한 원한(怨恨)에 근

4) 서쪽에 큰 성인이 있어 가로대 서학(西學)이다.

5) 공사 1장 3절.

6) 예시 6절.

7) 공사 3장 5절.

거하고 있으며 해원이 이루어져야 이상적인 세계가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증산사상에서 과거의 풍류도(風流徒)가 유불선 삼교를 흡수하여 통일 성취했던 것보다 더 확대하여 세계의 모든 특수한 생활경험에서 생기는 다양성에서부터 하나의 원본적(原本的) 상생(相生)문화의 진액(津液)을 창조하겠다는 구원의 비전을 읽는다.⁸⁾ 또 위의 세 번째 예문에서 지기(地氣)의 통일도 필요한데 그 통일도 해원이 되어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증산은 신도(神道)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들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최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 달이 넘지 않고, 송 구봉(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 달에 평안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불·유·불·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 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⁹⁾

위에서 19세기에는 세상의 교류와 상호 각국 간의 다각다양(多角多樣)한 관계로 인해서 혼란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기존 유불선의 도를 써서는 부족하므로 유불선의 진액(津液)을 취(取)하고 새로운 것을 가미(加味)한 도(道)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증산은 신도(神道)라 하고 그것은 모든 법을 합하여 쓰는 차원에서 주장된 원리임을 역설하였다. 증산의 통합적 종교 관념인 신도는 유 불 도 삼교합일의 원형(原形)으로서의 통합적 종교관념이다.¹⁰⁾ 위에서 신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에 따르는 것이고 해원의 원리도 이 신도로부터 풀어야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증산의 신도는 앞장에서 살펴 본 해원의 원리와도 밀접한 것이 된다.

8) 김형효, 『동서철학에 대한 주체적 기록』(서울: 고려원, 1985), 78쪽.

9) 예시 73절.

10) 장재진,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토피아』(서울: 산지니, 2011), 199쪽.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¹¹⁾

상계에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¹²⁾

우리가 살고 있는 선천(先天)이라는 세계는 상극에 따른 원한이 발생하는 세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어야 하는데 이에 신도의 원리가 작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생(相生)의 원리(原理)가 열려져서 우리가 가고자하는 이상세계인 후천선경(後天仙境)에 이를 수 있음을 위의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신도로부터 풀어 조화(造化)하여 도수(度數)를 굳게 정해놓은 것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로, 증산은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증산이 탄강한 지역이 삼신산(三神山)이 있는 곳인데 이 산들은 풍수적으로 증산의 사상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신선사상과의 상관성도 보여준다.

이곳은 예로부터 봉래산(蓬萊山)·영주산(瀛洲山)·일명 신선봉(一名 神仙峰)·방장산(方丈山)의 세 산이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리워 오던 곳이다.¹³⁾

삼신산이 증산이 탄강한 주변 지세와 관계된다는 것은 증산의 사상이 도가적 풍모(風貌)를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삼신산 가운데 하나인 방장산(方丈

11) 공사 1장 3절.

12) 예시 9절.

13) 행록 1장 2절.

山)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산줄기가 다음과 같이 증산의 탄강지와 연맥(緣脈)되어 있음을 밝힌 구절에서 풍수지리적으로 증산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방장산(方丈山)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 망제봉(望帝峰)과 영주산(瀛洲山)이 우뚝 솟으니 그 뒷기슭과 함께 선인포전(仙人布氈)을 이룩하고 있다. 망제봉(望帝峰)의 산줄기가 기복연면하여 시루산을 이룩하였도다. 이 시루산 동쪽 들에 객망리(客望里)가 있고¹⁴⁾

객망리는 상제께서 탄강하시기 이전에는 선망리(仙望里)라 하더니 후에는 객망리라 하고 상제께서 화천(化天)하신 뒤로는 신월리(新月里)로 고쳐 부르고 오늘에 이르도다.¹⁵⁾

시루산 동쪽들에 있는 객망리가 증산이 탄강한 곳인데 이곳의 지명이 증산의 탄강 전에는 신선을 바란다는 의미의 선망리(仙望里)로, 증산의 탄강 시에는 사람으로서의 손님을 바란다는 객망리(客望里)로, 탄강 후에는 새로운 달이라는 신월리(新月里)로 그 지명을 달리해서 천부적으로 命名되어 졌다는 것은 풍수지리와 증산의 사상이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한편 증산을 따르던 중도 차경석의 선묘(先墓)가 증산의 종교적 행적인 천지공사(天地公事)에 쓰여 지고 있음도 볼 수 있다.¹⁶⁾ 또 증산이 길가의 묘(墓)를 보고 그 혈(穴)의 형태와 그 발음(發蔭)에 대해 언급한 내용¹⁷⁾도 풍수지리

14) 행록 1장 3,4절.

15) 행록 1장 7절.

16) 상제께서 그 후 경석에게 「너의 선묘인 구월산(九月山) 금반사치(金盤死雉)의 혈음(穴蔭)을 옮겨와야 되리라」고 명하시고 공우에게 북을 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혈음은 반드시 장풍(長風)을 받아야 발하리라」 하셨도다. 이 때 이 도삼(李道三)의 아우 장풍(長豐)이 문득 들어오거늘 공우가 북채를 잠깐 멈추고 「장풍이 오느냐」고 인사를 하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이제 그만 그치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3장 41절)

17) 상제께서 어느날 공우를 데리시고 태인 보림면 장자동을 지나는 길가에서 묘(墓)를 보시고 공우에게 이르시니라. 「이 혈(穴)은 와우형(臥牛形)이나 금혈형(琴穴形)이라고 불리우니라. 그것은 혈명을 잘못 지어서 발음(發蔭)이 잘못 되었느니라. 어디든지 혈명을 모르거든 용미(龍尾)없이 조분(造墳)하였다가 명사에게 혈명을 지은 뒤에 용미를 달면 발음이 되나니라」 하셨도다.(행록 4장 9절)

적인 면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나아가 증산은 포괄적으로 인류의 반목쟁투(反目爭鬪)가 지기(地氣)의 불통일(不統一)에 기인한 것임을 풍수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밝히고 스스로 조선의 땅의 정기(精氣)를 뽑아 합치는 천지공사를 행하였다.¹⁸⁾

3. 일본과 조선에 대한 증산의 문제해결 원리

3.1. 일본

이 장에서는 일본과 조선에 대한 증산의 문제해결방식을 해원, 신도, 풍수 지리와 관련해서 보기로 한다. 증산의 해원과 관련된 일본(日本)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키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¹⁹⁾

지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 가지의

18)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공사 2장 5절)

19) 공사 2장 4절.

한만 맺었으니 소위 삼한당(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그한이요. 세째는 모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그한이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됴므로써 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그한이 풀리고, 세째로는 고한 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 강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 추수(民無秋收)하게 됴므로써 그한이 풀리리라.²⁰⁾

위에서 보듯이 일본이 갖고 있는 조선에 대한 과거의 적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임진왜란(1592) 당시의 일본의 원한으로 나타난다. 위의 예문은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조선 정복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직도 도술 신명의 원한이라는 신적 작용으로 존재하여 현 동아시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조선의 현실은 서세동점과 일본 및 청국과의 관계에서 열세에 놓여 국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해원을 이루어야함으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적이 없어져야 양국 간의 선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일시천하통일(一時天下統一)과 일월대명(日月大明)의 기운을 일본이 갖게 되어 조선에 대한 해원을 하게 되나 원이 풀리면 조선에서 물러나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선언이다. 이는 해원의 관점에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며 일본의 원한과 그에 대한 해원의 내력은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증산의 현실인식 및 문제해결을 신도(神道)와 관련해서 보기로 한다. 일본과 관련해서 증산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적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적이 풀릴지라.²¹⁾

이는 앞 장에서도 살펴 본 내용인데 신도와 관련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20) 예시 74절.

21) 공사 2장 4절.

도술신명 사이에 좋지 않은 척이 맺혀 있다는 부분이다. 조선의 도술신명, 일본의 도술신명을 대응시켜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를 조명하여 양국의 신명 간의 대립적 갈등을 인식해야한다는 것은 신도적(神道的) 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의 도술신명이 임진왜란에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조선에 대한 척을 갖고 있어 그것을 해결해야한다는 논리는 신도의 영향 하에 인간적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증산의 신도 사상에 연유한 것이 된다.

近日日本 文神 武神 并務道通²²⁾

위에서 가까운 날에 일본의 문신과 무신이 함께 힘을 합쳐 도통(道通)에 힘 쓴다는 것도 문신과 무신이라는 신적 세계와 관련해서 세상을 보는 증산의 시각이다. 이러한 일본의 신들의 작용이 인간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산은 20세기 초의 시대상 속에 살면서 신계(神界)에 항상 주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그의 종교적 행적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풍수와 관련해서 일본(日本)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증산은 일본의 지기(地氣)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상제께서 무더운 여름 날에 신방축 공사를 보시고 지기를 뽑으셨도다. 종도들이 상제께서 쓰신 많은 글을 태인 신방축의 대장간에 가서 풍긋불에 태웠나니라. 며칠 후에 상제께서 갑철을 전주 김 병욱에게 보내여 세상의 소문을 듣고 오게 하셨도다. 갑철이 병욱으로부터 일본 신호(神戶)에 큰 화재가 났다는 신문 보도를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상제께 아뢰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일본의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나니라. 옛적부터 우리 나라는 그들의 침해를 받아왔노라. 이제 그 지기를 뽑아야 저희의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보는 겨를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강산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전날 신방축 공사를 보았음은 신호(神戶)와 어음이 같음을 취함이었으니 이제 신호에 큰 불이 일어난 것은 앞으로 그 지기가 뽑힐 징조이로다」고 하셨도다.²³⁾

22) 행록 5장 38절. 가까운 날에 일본의 문신과 무신이 함께 도통(道通)에 힘을 쓴다.

증산은 일본에 대해 강렬(強烈)한 지기(地氣)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지기의 영향(影響)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탐욕(貪慾)과 침략성(侵略性)이 강(強)하고 남을 해롭게 하였던 것이라고 언급(言及)하였다. 이는 동아시아의 화평(和平)을 위해서는 부정적(否定的) 요소(要素)이므로 일본의 지기(地氣)를 뽑는 천지공사를 시행(施行)하였다. 임진왜란(1592)과 조선 말기의 조선에 대한 침략도 강렬한 지기의 영향이므로 지기를 뽑아 한일 관계를 우호 선린(善隣的)적 상황(狀況)으로 전환(轉換)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보는 것으로 증산의 동아시아관을 보여준다.

3.2. 조선

19세기말의 조선은 그동안 강대국의 영향 하에 약소국(弱小國)으로서 존재해 온 원한(怨恨)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을 데리고 농암(籠岩)을 떠나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원평 주막에 들러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 술을 사서 권하고 「이 길이 남조선 뱃길이라. 짐을 많이 실어야 떠나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三十리 되는 곳에 이르러 「대진(大陣)은 일행 三十리라」하시고 고부 송월리(松月里) 최(崔)씨의 재실에 거주하는 박 공우(朴公又)의 집에 유숙하셨도다. 공우와 경석에게 가라사대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通情神)이 나오노라」 나의 일은 비록 부모형제 일지라도 모르는 일이니 또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 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²⁴⁾

증산은 조선에 대해 참화(慘禍) 중에 문헌 무명(無名)의 약소(弱小) 민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원으로 당대 약소국가인 조선에 탄강하였으며 이는 국가적 해원을 해주려는 증산의 의도가 작용했음이다. 또 조선의 해원이 이루어지며 증산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선경(仙境)의 낙(樂)을 얻게 되고, 증산은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동학(東學) 신자들이 순교(殉教)한 교조(敎祖) 최수운(崔水雲)의 갱생(更生)을 바라는데 자신이 기존 동학(東學)의 부족함을 채워 더 큰 차원의 소망(所望)을 이루게 해주는 대선생(代先生)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에서 증산의 말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을 도통군자(道通君子)가 되게 하는 일을 자신이 주도함을 밝혔다. 위의 '남조선(南朝鮮) 뱃길'도 증산이 남조선(南朝鮮)이라는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그곳까지 이르게 되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종도들과 함께 거칠해나가는 종교적 행적의 일대 장정을 상징화해서 표현한 용어이다. 다음으로 신도와 관련해서 조선에 대해 보면 아래와 같다.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꺼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²⁵⁾

조선(朝鮮)이라는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신명(神明)들을 잘 대접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신명을 잘 대접한다는 것은 신도의 원리를 수구하고 신(神)과 친화적(親和的)으로 지냄을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로서의 조선이 신(神)과 관련해서 신들의 은혜를 입는 위치에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신도의 원리 하에 조선의 정체성이 새로이 정립되어 나감을

24) 권지 1장 11절.

25) 교법 3장 22절.

보여주는 것으로 보은(報恩)의 원리로 열려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유를 여쭙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됨으로 그러하노라.」고 하셔도다.²⁶⁾

조선이 상등국이 되는 면에도 신명이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명이 관계하여 조선이 상등국(上等國)의 차원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신도의 원리 하에서 국가적 발전도 이루어진다는 증산의 신도사상의 일단을 보여주는 논리이다.

天下自己神古阜運回
 天下陰陽神全州運回
 天下道通神井邑運回
 天下上下神泰仁運回
 天下是非神淳昌運回²⁷⁾

위에 등장하는 고부(古阜), 전주(全州), 정읍(井邑), 태인(泰仁), 순창(淳昌) 등은 모두 조선의 특정 지역이다. 그런데 이 장소들이 자기신(自己神), 음양신(陰陽神), 도통신(道通神), 상하신(上下神), 시비신(是非神) 등으로 정(定)해진 신(神)들과 관계를 맺고 천지공사를 이루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분석은 명확하게 할 수 없으나 역시 지역과 관련해서 신이 작용하는 신도(神道)의 일단(一端)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자기(自己), 음양(陰陽), 도통(道通), 상하(上下), 시비(是非) 등의 의미를 이루는데 신들이 조선의 각 지역에서 용사(用事)하고 있음이다. 또 조선의 신명을 일본의 조선에 대한 해원 기간에 보내 일을 한다는 것도 신명과 관계된 신도사상을 보여준다.²⁸⁾ 이어서

26) 예시 29절.

27) 공사 3장 39절.

28) 상제께서 계묘년에 종도 김 형렬과 그 외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 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풍수와 관련해서 조선을 보면 조선(朝鮮)의 순창(淳昌) 농암(籠巖)의 박장근의 집이 풍수지리적으로 큰 기운이 묻혀 있다고 한 내용도 보인다.

상제께서 순창 농암(籠巖) 박 장근의 집에 가셔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곳에 큰 기운이 묻혀 있으니 이제 그 기운을 내가 풀어 쓰리라. 전 명숙과 최 익현이 있었으되 그 기운을 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여 동학이 성공하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도다.²⁹⁾

조선 말기 동학혁명(東學革命, 1895)을 주도했던 전봉준(全奉準)과 수구파(守舊派)인 최익현(崔益鉉)을 거론(擧論)하며 조선(朝鮮) 순창(淳昌) 농암(籠巖)의 지기(地氣)를 언급(言及)한 것은 당시 조선의 상황과 관련해서 농암(籠巖)의 지기(地氣)가 중요하게 쓰임을 보여준다. 동학(東學)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농암의 지기를 풀어쓰지 못한다에 있었다는 것은 풍수지리(風水地理)가 조선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데 결정적(決定的)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또 증산은 조선(朝鮮)의 전북(全北) 군산(群山)이라는 땅에 군창지(郡倉地)를 이루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다.

군산에 가셔서 공사를 보실때 「지유군창지 사불천하허 왜만리 청만리 양구만리 피천지허 차천지영(地有群倉地使不天下虛 倭萬里淸萬里洋九萬里 彼天地虛此天地盈)」이라고 써서 불사르셨도다.³⁰⁾

조선 군산이 군창지(郡倉地)가 있어 천하(天下)를 허(虛)하게 하지 않으며 일본과 청 및 서양은 허(虛)하고 조선은 영(盈)하게 한다는 것도 각 국가와 관련해서 풍수적으로 조선 군산에 대한 천지공사를 처결한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조선의 위상을 상승시키는 면이 내재된 주장을 볼 수 있다.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예서 25절)

29) 공사 1장 27절.

30) 공사 3장 30절.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母岳山)과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기형(五仙圍基形)이 있고 기변(基變)은 당요(唐堯)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명당(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니라. 네 명당은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무안(務安) 승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과 장성(長城)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형(仙女織錦形)과 태인(泰仁)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二十四 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며 해변에 있어 해왕(海王)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산군(山君), 변산은 해왕(海王)이니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³¹⁾

증산은 조선의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는 천지공사를 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세상의 일이 영향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지의 산군(山君)과 바다의 해왕(海王) 등이 회문산과 변산으로 명명되고 네 명당(明堂)의 정기(精氣)를 종합(綜合)하며 단주(丹朱)라는 인물의 해원이 땅의 오선위기형(五仙圍基形)과 상관된다는 논리는 풍수지리적(風水地理的) 시각을 극명(克明)하게 보여준다.

장근으로 하여금 식혜 한 동이를 빚게 하고 이날 밤 초경에 식혜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인경 밑에 놓으신 후에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다섯 신선 중 한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오.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 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 지금 최수운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코자 함이니 이 식혜는 수운을 대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가진 문집(文集)에 있는 글귀를 아느냐」고 물으시니 몇 사람이 「기억하는 구절이 있나이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백지에 「결군곳 초란이페 남사당 여사당 삼대치」라 쓰고 「이 글이 곧 주문이라. 외울 때에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니 조심하라.」 이르시고 「이글에 곡조가 있나니 만일 외울 때에 곡조에 맞지 않으면 신선들이 웃으리라」 하시고 상제께서 친히 곡조를 붙여서 읽으시고 종도들로 하여금 따라 읽게 하시니 이윽고 찬 기운이 도는지라. 상제께서 읽는 것을 멈추고 「최

31) 공사 3장 6절.

수운이 왔으니 조용히 들어보라」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인경 위에서 「가장(家長)이 엄숙하면 그런 빛이 왜 있으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말이 어디에 있는뇨」라고 물으시니라. 한 종도가 대답하기를 「수운가사(水雲歌詞)에 있나이다.」 상제께서 인경 위를 향하여 두어 마디로 알아듣지 못하게 수작하셨도다.³²⁾

위에서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는 것은 앞에서 단주의 해원이 오선위기혈과 관계가 있고 이는 추가 작용으로 다시 조선의 국운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단주의 해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나라의 국운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조선은 풍수지리에 맞춰 그 국운이 달라지는 상관성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오선위기에서 다섯 신선들은 다음의 설명처럼 바둑판을 중심으로 배치되며 국가적 대표로 비유되어 조선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 하에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전환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 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³³⁾

조선의 좌상(座上) 득천하(得天下)를 말하고 있다. 당시의 형세가 바둑을 두는 면에 대비되고 있다. 상호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대립되어 승부를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편(偏)을 드는 상황이 다섯 신선들 중 네 신선의 모습이라면 남은 한 신선은 편을 짓지 않고 있다가 끝난 바둑의 판과 돌을 모두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유적으로 남은 한 신선이 조선에서 천하를 얻게 되는 미래상을 증산이 밝힌 것이다.

32) 공사 2장 3절.

33) 예시 28절.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³⁴⁾

이는 조선의 산수(山水)가 뛰어나서 인간 세상에 도통군자가 나오게 된다는 풍수지리적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증산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조선에서 인간 완성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조선의 금강산 일만 이천 봉(峰)의 지기(地氣)와 관련이 있음³⁵⁾을 밝혔다.

4. 중국에 대한 증산의 문제해결 원리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의 관계는 외세의 동아시아의 영향 하에서 다양한 상황을 따라 동아시아 협력론이 대두되었음을 볼 수 있다.³⁶⁾ 이러한 질서 아래 증산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해원(解冤)사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는 증산사상의 태동이 되는 문제의 진단에 있어 조선이 아닌 인접국 중국(中國)의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면을 담고 있다.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에서 증산의 문제해결방식이 과거 동양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중국 역사 속에서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시원(始原)의 의미로 표상화 된다. 증산은 원한이 상고시대 제요(帝堯)시대에 일어났음을 밝혔다.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

34) 권지 1장 11절.

35)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 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45절)

36) 현광호, 『한국 근대 사상가의 동아시아 인식』(서울: 선인, 2009), 42-47쪽 참조.

록에 시작이고 원(元)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 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³⁷⁾

중국 상고시대 요(堯)와 그의 아들 단주(丹朱)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인류사에 문제가 야기(惹起)됐음을 볼 수 있다. 증산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세상의 문제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국(中國)이고 당요(唐堯)시대이다. 요의 禪讓에 아들 단주는 수긍할 수 없었고 이는 결국 순(舜)의 죽음과 순의 두 왕비(王妃)의 죽음을 일으켰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비극이 단주의 원한(怨恨)으로부터 나왔고 그 원한이 단주 개인적 차원에 그쳐 없어진 것이 아니라 풀어지지 못해 단주의 원한으로 인한 폐해가 인류 역사 속에 남아 세상에 퍼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증산은 해원(解冤) 공사(公事)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근원적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해원은 중국내 민족 간의 문제에서 해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면으로 나타난다. 당시 19세기말 오랑캐라 불리는 청국(淸國)이 지배하던 중국의 영토를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다.

원일과 덕겸에게 「너희 두 사람이 덕겸의 작은 방에서 이례를 한 도수로 삼고 문밖에 나오지 말고 중국일을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라. 너희의 처결로써 중국 일을 결정하리라」 이르시니 두 사람이 명하신 곳에서 성심 성의를 다하여 생각하였도다. 이렛날에 원일이 불리워서 상제께 「청국은 정치를 그릇되게 하므로 열국의 침략을 면치 못하며 백성이 의지할 곳을 잃었나이다. 고서(古書)에 천여불취 반수기양(天與不取反受其殃)이라 하였으니 상제의 무소불능하신 권능으로 중국의 제위에 오르셔서 백성을 건지소서. 지금이 기회인 줄 아나이다」고 여쭙어도 상제께서 대답이 없었도다. 덕겸은 이례 동안 아무런 요령조차 얻지 못하였도다. 상제께서

37) 공사 3장 4절.

「너는 어떠하뇨」 하고 물으시는 말씀에 별안간 생각이 떠올라 여쭙는지라. 「세계에 비할 수 없는 물증지대(物衆地大)와 예악문물(禮樂文物)의 대중화(大中華)의 산하(山河)와 백성이 이적(夷狄 - 오랑캐)의 칭호를 받는 청(淸)에게 정복되었으니 대중화에 어찌 원한이 없겠나이까. 이제 그 국토를 회복하게 하심이 옳으리라 생각하나이다.」 상제께서 무릎을 치시며 칭찬하시기를 「네가 재판을 올바르게 하였도다. 이 처결로써 중국이 회복하리라」 하시니라. 원일은 중국의 해원공사에만 치중하시는가 하여 불평을 품기에 상제께서 가라사대 「순망즉치한(脣亡則齒寒)이라 하듯이 중국이 편안하므로써 우리는 부흥하리라. 중국은 예로부터 우리의 조공을 받아 왔으므로 이제 보은신은 우리에게 쫓아와서 영원한 복록을 주리니 소중화(小中華)가 곧 대중화(大中華)가 되리라」 일러주셨도다.³⁸⁾

위에서 해원의 측면에서 이적의 칭호를 받는 청국(淸國)의 지배를 벗어나 기존 중국을 회복시킴과 보은의 측면에서는 조공(朝貢)을 받은 중국이 조선에 대해 은혜를 갚는 상황으로 변화되어야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조선의 양국 관계를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통시적으로 조명하여 힘의 논리아래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보는 것이 아닌 도덕적 원리 하에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조선이 중국에 대해 과거 조공(朝貢)한 것을 새로운 증산의 동아시아 문제 해결의 논리인 보은(報恩)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이에 과거 소중화였던 조선이 중국을 대중화로 섬기며 양국 관계를 유지해왔었는데 이제 보은의 원리라는 패러다임을 따라 중국이 조선에 대해 예(禮)를 취해 상호 호혜의 원칙을 따라 대등한 자주국의 입장에서 과거의 은혜를 갚는 차원이 이루어지고 양국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의 상등국화에 의해 신명적으로 보은신(報恩神)이 작용하여 소중화(小中華)였던 조선이 대중화(大中華)가 되는 것으로 보은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결국 해원의 측면에서 청국(淸國)의 지배를 벗어나 기존 중국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보은의 측면에서는 조공을 받은 중국이 조선에 대해 은혜를 갚는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은(報恩)과 관련해서 증산은 중국의 상고 인물들에 대해서도 보은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동아시아 질서가 새로이 구축될

38) 공사 3장 18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신농씨(神農氏)가 농사와 의학을 천하에 펼쳤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강태공(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되 그 공덕을 앙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아에 경신년경신월경신일강태공조작(庚申年庚申月庚申日姜太公造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³⁹⁾

위의 내용은 과거 역사 속에서 강신농과 강태공의 공덕에 대한 혜택을 보았으나 그 은혜를 갚지 않았으므로 해원시대를 맞아 그 은혜를 갚는 보은(報恩)의 원리가 있게 됨을 증산이 밝힌 것이다. 즉 해원과 보은의 양 원리로 문제를 투영해서 해결의 논리를 찾아야 됨을 알 수 있다. 해원과 보은에 대해서는 해원을 위주로 하여 천지공사를 보은으로 종결하니 해원 보은 양원리인 도리로 만고에 쌓였던 모든 원율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 신도와 관련해서 중국의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황극신(皇極神)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씀 하셨도다. 「황극신은 청국 광서제(淸國光緒帝)에게 응기하여 있다. 하시며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 오게 될 인연은 송 우암(宋尤庵)이 만동묘(萬東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밤마다 시천주(侍天呪)를 종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運喪」하는 소리와 같도다.」 하시고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御路)라 하나니 어로는 곧 군왕의 길이로다.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고 하셨도다. 이때에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⁴⁰⁾

위에서 황극신(皇極神)이 청나라 황제인 광서제(光緒帝)에게 응기(應氣)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인 광서제에게 신(神)인 황극신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산은 당시 조선에 탄강하여 혼란한 세상을 匡正하기위해 종교적

39) 예시 22절.

40) 공사 3장 22절.

행적을 처결하였다. 북벌론을 포함한 중화회복의식은 본래 명나라의 회복을 통한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복구라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이 포기된 후에 중화관념은 문화적 차원에서 논의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보다 중요해진 문제는 다른 곳에서라도 '중화'의 제도와 문물을 보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성리학적 화이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명나라를 대신할 '새로운 중화'를 설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명나라와 가장 유사한 조선이 담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중화계승의식'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⁴¹⁾ 증산은 소중화인 조선이 대중화가 된다고 보은의 논리 아래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조선 대중화(大中華)론에 있어 그 방법론은 신적 존재의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도사상에 기저하고 있음을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증산이 세상 구원의 종교적 행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적 존재가 황극신인데 그 신이 중국에 있으므로 조선으로 오게 해야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정한 신이 어떠한 일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신도에 따라 증산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해나갔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관련해서 증산이 신도의 원리를 적용시켜나간 것으로 이렇게 황극신이 조선으로 이동하고 광서제가 붕어(崩御)함으로 인해 당시 청나라에도 큰 혼란이 일어나 이후 청국의 궤세(國勢)가 기울어져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아울러 이는 앞 장에서 본 중국의 해원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연계성을 제공하는 증산의 종교적 행적이 된다. 이상에서 동아시아의 문제해결을 볼 때, 20세기를 맞으며 증산은 동서의 문물이 활발히 교류되어 국경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장 속에서 하나가 되어 갈 미래 사회를 조망하였으며, 새로이 요구되는 문화의 방향성을 세워 인류사회의 전체적인 개방과 발전을 꾀하려는 시각을 가졌던 것이다.⁴²⁾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화론에 입각한 조선 대중화주의에 기인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www.kci.go.kr

41)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서울: 아카넷, 2010), 117쪽.

42) 고남식, 「문화수용과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한국종교』 26, 2002, 211.

5. 結語

동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지역이다. 19세기 말인 조선 말기에 동아시아는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일대 혼란을 겪게 된다. 증산은 조선 말기인 1871년에 탄강하여 시대적 현실을 인식하고 민중구제의 신앙을 전하였다. 증산은 서양을 경계하고 동양을 지키기 위해 동양수호론을 주장하였다. 증산은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신 패러다임을 주장하였다.

증산은 동아시아 삼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단초는 먼저 과거 동아시아 삼국에 대한 해원의 원리, 신도(神道) 사상, 풍수지리(風水地理)사상에 따라 동아시아의 새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증산은 인류사의 많은 문제가 상극(相克)에 의한 원한(怨恨)에 근거(根據)하고 있으며 해원(解冤)과 보은(報恩)이 이루어져야 이상적인 세계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기(地氣)의 통일에도 해원이 필요하다 하였다. 이는 해원과 보은의 양 원리로 문제를 투영해서 해결의 논리를 찾는 것으로 해원을 위주로 하여 천지공사를 보은으로 종결하니 해원 보은 양(兩) 원리인 도리로 만고에 쌓였던 모든 원율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세상으로 된다는 것이다.

증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척이 없어져야 양국 간의 선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일시 천하 통일(一時天下統一)과 일월대명(日月大明)의 기운(氣運)을 일본이 갖게 되어 조선에 대한 해원을 하게 되나 원이 풀리면 조선에서 물러나 자국(自國)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하였다. 중국과 조선의 양국 관계는 힘의 논리아래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보는 것이 아닌 도덕적 원리 하에서 통시적으로 역사를 재조명하여 해원의 측면에서 청국(淸國)의 지배를 벗어나 기존 중국을 회복시킴과 보은의 측면에서는 조공을 받은 중국이 조선에 대해 은혜를 갚는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증산은 조선에 대해 참화(慘禍) 중에 묻힌 무명(無名)의 약소(弱小) 민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원으로 당대 약소 국가인 조선에 탄강하였으며 이는 국가적 해원을 해주려는 증산의 의도이다.

증산은 19세기에는 세상의 교류와 상호 각국 간의 다각다양한 관계로 인해서 혼란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기존 유불선의 도를 써서는 부족하므로 유불선의 진액(津液)을 취하고 새로운 것을 가미한 道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증산은 신도(神道)라 하고 그것은 모든 법을 합하여 쓰는 차원에서 주장된 원리임을 역설하였다. 신도와 관련해서 보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도술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다는 부분이다. 조선의 도술신명, 일본의 도술신명을 대응시켜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를 조명하여 양국의 신명 간의 대립적 갈등을 인식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도술신명이 임진왜란에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조선에 대한 척을 갖고 있어 그것을 해결해야한다는 논리는 신도의 영향 하에 인간적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증산이 세상 구원의 종교적 행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적 존재가 황극신(皇極神)인데 그 신이 중국에 있으므로 조선으로 오게 해야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정한 신이 어떠한 일에 작용함이다. 조선이 상등국(上等國)이 되는 면에도 신명이 관계하고 있음이다. 신명이 관계하여 조선이 상등국의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신도의 원리 하에서 국가적 발전도 이루어진다는 증산의 신도사상의 일단을 보여주는 논리이다.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보면 삼신산이 증산이 탄강한 주변 지세와 관계된다는 것은 증산의 사상이 도가적 풍모를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증산은 포괄적으로 인류의 반목쟁투가 지기의 불통일에 기인한 것임을 풍수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밝히고 스스로 조선의 땅의 정기를 뽑아 합치는 천지공사를 행하였다. 임진왜란과 조선 말기의 조선에 대한 침략도 강렬한 지기의 영향이므로 지기를 뽑아 한일 관계를 우호 선린적 상황으로 전환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보는 것으로 증산의 동아시아관이다. 동학(東學)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농암(籠岩)의 지기를 풀어쓰지 못한데 있었다는 것은 풍수지리가 조선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증산은 조선의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는 천지공사를 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세상의 일이 영향 받고 있음이다. 조선은 단주의 해월이 이루어짐에 따라 나라의 국운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조선은 풍수지리에 맞춰 그 국운이 달라지는 상관성을 볼 수 있다. 또 조선의 산수(山水)가 뛰어나서 조선에서 전인적(全人的) 완성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조선의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의 지기(地氣)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參考文獻>

-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진경》
- 고남식, 「문화수용과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한국종교』 26, 2002, 211.
- 김형효, 『동서철학에 대한 주체적 기록』 (서울: 고려원, 1985), 78.
- 이상익, 『서구의 충격과 근대 한국사상』(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22.
- 장재진,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토피아』(서울: 산지니, 2011), 199.
-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서울: 아카넷, 2010), 117.
- 현광호, 『한국 근대 사상가의 동아시아 인식』(서울: 선인, 2009), 42-47.

<Abstract>

Jeung-san incarnated in Late Chosun and his recognition of reality of life in that times led him to spread relief thoughts for the people. To guard against the West and defend the eastern spirit Jeung-san claimed to defend the Asianism and declare a new East Asia paradigm focused on Korea.

Jeung-san regarded the three key to solve the problem among Korea-China-Japan relation as the principle of resolution of grievances(解冤) with return of grace(報恩), heavenly Tao(神道), thoughts of Feng Shui(風水地理) and tried to reconstruct a new East Asian order.

Jeung-san declared many problems in human history is based on grudge which came from incompatibility(相克), and eternal religious ideal world could come only if after resolution of grievances(解冤) and return of grace(報恩) was accomplished.

Two nation's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was reilluminated not from the point of power in terms of power countries or small but from the point of moral principle of history, so viewed from the side of resolution of grievances(解冤), China quit being colonized from Ching(清) dynasty and achieve independence of recovery, and viewed from the side of return of grace(報恩), independent China change to return the grace of tribute Korea paid.

Jeung-san announced that at that time of 19th century the existing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could not solve the problem which many country mutually and complictedly related, so needed a new Tao which has the nucleus extracted from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nd something new attached. Jeung-san called it heavenly Tao(神道), and heavenly Tao(神道) was invented by the principle every method melted and combined.

Jeung-san informed that the god of pole ecliptic(皇極神) was needed to accomplish his goal of reordeing of the world and the god of pole ecliptic(皇極神) was located in China and needed to move to Chosun, that shows there is one god to one mission. The mission to upgrade Chosun to higher class country is

also related with god to play the role. The logic that nation development is also related with some kind of god shows one aspect of Jeung-san's heavenly Tao(神道).

Jeung-san revealed the hidden principles of Feng Shui(風水) that the deviation of Chi(氣) of locality all over the world led to global confrontation, and personally execute Cheonjigongsa(天地公事, Construction of heaven and earth) to extract and merge Chi(氣) of locality all over the world focused on Chosun. As the grudge of Danju, the son of King Yao(堯) in ancient period of China was resolved, Chosun came to face situations of ascending of national fortunes and that shows relativity with Cheonjigongsa(天地公事) according to Feng Shui(風水).

Key words: resolution of grievances(解冤), return of grace(報恩), heavenly Tao(神道), thoughts of Feng Shui(風水地理), Cheonjigongsa.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9. 30.	2015. 11. 4.	2015. 11. 11.	2015. 11. 15.	2015. 11. 30.